담양군, 고품질 죽로차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죽로차연구회, 죽로차 생산 집중교육 성료

담양군은 친환경 고품질 죽로차 생산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진행한 죽로차 재배부터 상품화 과정까지의 집중 심화 교육을 5월 30일 마쳤다고 밝혔다.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내 4일 동안 죽녹원 내 죽로차제다실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다양한 맛의 죽로차를 보급하기 위해 최윤 혜우전통차제다교육원장 및 김영애 세계홍차연구소장을 초빙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라는 담양 죽로차는 맛, 향, 색상이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100% 수제로 생산한다. 특히다원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전통 덖음차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죽로다원을 찾는 애호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덖음차는 찻잎을 볶아서 만든 차로 풋내가 적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죽로차연구회 정광웅 회원은 "대나무 이슬을 머금은 신선한 찻잎을 이른 새벽 직접 채취하는 법부터 제다의 핵심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와 실습을 통해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력 있는 명품 죽로차 생산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죽로차연구회는 죽로다원 산책과 시음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연구회(회장 최종순 010-5333-3080)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군, 기후변화에 따른 5대 리스크 대응책 마련 박차

고수온·태풍·적조·이상조류 등 대응 방안 TF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달 30일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방안 TF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정석호 완도부군수를 중심으로 국단장 및 관련 부서장,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유병동 팀장,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박세훈 대표, 청산바다환경연구소 김경원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폭염이 20일(평년 2.5일), 열대야가 28일(평년 8.4일)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 사이 바다 수온은 평년 대비 최고 2~5℃이상 높은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양식 생물에 큰 위협이 된 바 있다.

고수온 현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태풍, 적조발생, 이상조류, 폭우 등의 발생 빈도 및 규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TF회의에서는 5가지 신규 사업이 도출됐다.

신규 사업은 ▲양식 품종별 번식주기 재규명을 통한 종묘생산 및 채묘시기 조절, ▲인공생산 기술 안정화 등 실용 연구, ▲바이오플락 양식기술, ▲미래 전략형 외해가두리 및 부대시스템 개발, ▲지역특성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확대 등이며 앞으로 적용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정한 해양생태계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해양폐기물 사전 억제, 적조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등 기존 11개 세부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해역 변동성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양식 환경 특성 조사,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 강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돌산대교 경관조명 새 단장

8월 19일까지 공사 진행…고효율 LED조명등 설치

여수시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돌산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된 경관조명을 교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전기요금 43% 절감 효과가 있는 고효율 LED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컬러와 이벤트 효과를 가미할 계획이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관조명을 소등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 최고 야경을 자랑하는 여수 밤바다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설치된 돌산대교 경관조명은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체납액 최소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영암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낭산실에서 읍·면장 및 실과소 해당 업무담당팀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징수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월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부서별 체납원인분석 및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별 사유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하였으며아울러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압류, 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손점식 부군수는 "우리군 자주재원 주체인 대불산단의 조선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벼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품종선택 기회 제공

지난달 29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내 벼 품종비교 전시포에서 손으로 직접 모를 심는 손 모내기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위치한 벼 품종비교 전시포는 벼 품종별 생육 상황을 담당자와 농업인들이 직접 비교 평가해 보는 실증 포장이다. 20여개의 벼 품종이 식재가 되고 품종별 다른 재식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정밀한 이앙작업을 위해 기계이앙이 아닌 손모내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벼 품종비교 전시포는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직원들이 직접 농사는 짓는 포장으로, 20a규모의 논에 최고품질 품종인 예찬, 수광, 호평은 물론 강진군 공공비축미곡 품종인 새일미, 새청무를 비롯한 20여가지의 다양한 벼 품종들을 선별해 심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소식재배 실증 요인을 품종별로 적용하여 더욱 다각적인 품종선택 기회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품종비교 전시포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벼 품종별 키, 수확량, 병해충저항성 등 특성을 재확인해 강진군에 도입 가능한 벼 품종을 발굴하고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최고품질벼인 예찬벼도 작년에 일부 농가가 벼 품종비교 전시포에서 품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다.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강진에서 재배가 될 예정이다.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져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품종의 지역적응성 등을 농업인들이 직접 육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예비 귀농인 전원생활 체험 교육

곡성군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 20명을 초청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예비 귀농귀촌인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곡성군의 현황과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하여 소개하며 곡성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해 장미공원을 산책하고,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귀농귀촌 선배의 집에 숙박하면서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의 시행착오와 성공 노하우 등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선배 귀농귀촌 농가에서 깻잎 농사체험, 양봉 체험 등 다양한 영농체험을 실시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곡성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뚝방마켓을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곡성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선배 귀농귀촌인의 경험을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최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형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우리 아이 오감 놀이교실' 운영

화순군이 영유아(3~6개월)와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오감 톡톡 놀이교실(이하 톡톡 놀이교실)'을 운영한다.

톡톡 놀이교실은 영유아의 오감을 자극해 인지·정서·언어·사회성 등 균형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동시에 부모와 아기의 유대감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화순군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6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총 4차례 톡톡 놀이교실을 진행한다.

군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엄마(또는 그 외 보호자)·아이 15개 팀이다. 화순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 그 외 보호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